

수석부회장-월서스님 사무차장-자월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월서스님은 17일 오전 조계종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월서스님(서운사 주지), 사무차장에 자월스님(태고종 前총무부장)을 임명하고 사령장을 전달했다. 월서스님은 이 자리에서 두 스님에게 종단간의 화합과 불교발전을 위해 협력을 당부했다. (관련 인터뷰 4면)



월서스님

현불뉴스

원각사비 보호구조물 가설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 내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와 원각사 10층석탑을 보호할 보호각 설치 가설되었다. 서울시는 3월 대원각사비 보호각 건립에 착공하며, 10층석탑은 이미 보호각을 세우기위해 임시 철구조물을 가설했다. 연면적 17평에 높이 9.45m로 바닥에 화강석 판석을 설치한 정자형태의 대원각사비 보호각은 오는 10월 완공된다. 또 10층석탑에도 새들의 배설물과 눈·비 등을 막을 보호각과 보호망이 함께 설치된다. 대원각사비는 높이 4.9m 너비 1.3m로 지금은 없어진 원각사 창건 경위 등을 새긴 비석으로 조선 성종2년(1471년)에 건립됐으나, 그동안 보호시설이 없어 비둘기 배설물과 산성비 등에 노출돼 조각과 문자가 부식되는 등 수난을 겪어왔다.

대구 경실련 불자모임 창립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내에 불자모임이 탄생한다. 대구 경실련 불교시민회(이하 경불회 준비위원장 강인성)는 지난 12일 반야사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8월15일 진각문화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기로 했다. 경불회는 창립 첫해인 올해 △사찰참배문화 개선 △불자의식개량운동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불회는 불교의 사회개혁운동을 통한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주 남산 산불발생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경 경주 남산 비파골일대에서 산불이 발생, 21일 10시 현재 약 10ha를 태우고 계속해 번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자 경주경찰서는 헬기 4대와 공무원 마을주민을 동원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바람으로 5시간만에 비파골, 새물골에 이어 금오산 정상까지 옮겨붙었다. 이날 불은 비파골 인근 마을 주민이 눈에서 비닐을 태우다 강한 바람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주시 문화과측은 "다행이 이 지역에는 문화재가 없어 피해는 없었다"며 "21일까지 진화가 안될 경우 인근 문화재 피해도 우려된다" 말했다.

3·1절 기획 항일봉기 진원지 제주 법정사 현장 "10만평 성역화... 항쟁의식 고취"

'독 독 포록' 항일운동당시 신호음이었던 목탁소리에 한라산 자락 법정사를 중심으로 나무 위 계곡및 바위위에 몸을 숨기고 있던 33인의 항일항쟁 주역들이 모습을 나타낼 것만 같다. 3·1운동보다 5개월 앞선 항일봉기 진원지 제주도 법정사지. 바로 이곳 10만여평이 성역화된다.



3·1운동보다 5개월 앞선 항일봉기 진원지 법정사 주변 10만여평이 성역화 된다.

은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10만여평에 1백50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불사이다. (관련 인터뷰 4면) 성역화 사업은 제주 4·3운동 때 화재로 전소된 역사의 현장 법정사지를 당시 형태로 복원하여 주민과 참배객들이 정진할 수 있는 기도도량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위령탑도 유불선 3교에 기반하여 스님들과 농민들의 봉기장면을 형상화해 조성한다. 또 위패를 모시는 영각을 건립하여

항일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열대 아열대 조성 강당 연수실을 구비한 청소년수련원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 수련원은 일반인 대상의 국민정신교육장으로도 활용한 계획이다. '보천교도의 난'으로 알려진 제주법정항일항쟁은 1918년 10월 5일 법정사 우란분절법회에서

로 불리워졌을 정도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전통불교가 항일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믿고 있을 리가 없다. 3인중 한사람인 박명수씨가 보천교 수사라는 이유로 '보천교도의 폭동'으로 비하시켰다. 해국된 역사를 규명하기위해 1995년 여름 제주도 현지에서 학술토론회가 개최된바 있으며 안

스님·주민 영령위로 영각등 건립 '보천교도 폭동' 비하 역사 재평가

'왜인들을 몰아내어 국권을 회복해야한다'는 격문을 발표하며 서귀포 주재소를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납치하며 민족의 독립을 주장한 무장봉기운동이다. 김연일(법정사 주지) 방동화(불교조계종 초대총무원장) 강인수 정구룡 김인수 김용홍 장림호 김상언 최태우스님과 행자 김은옥을 비롯한 승려 13인등 주역 33인과 주민 4백여명이 나섰는데 스님들의 역할이 워낙 커 당시 '방스님 난

후상씨(보조사상연구원 간사)의 '무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는 논문이 지난해 12월 서울대 <종교학 연구>(제15집)에 수록되면서 학계에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에 영역의뢰하여 최근 자료조사및 기본시설계획을 수립한 서귀포시와 추진위는 3월부터 기초작업에 들어간다. (제주=김원우 기자)

칠보사 노인전용 복지원 상량

사찰직영 첫 실버타운...의료시설등 3개동

칠보사(주지 동호)는 지난 17일 칠보사(주지 동호)는 지난 17일 5백여평의 부지에 3층 3개동의 규준남 아산에 건립 중인 보문선원 노인전용 복지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 개원될 복지원은

허가가 나지 않아 당초 방침과는 달리 유료로만 운영할 계획이었다. 보문선원 복지원은 보리수마을 상라원과는 달리 사찰에서 직영하는 첫 실버타운으로, 노령화시대 대비한 실질적인 노인포교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경마장 건설철회" 주장

고고학회, 예정지서 1백여 유적 확인

경주경마장 건설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한국고고학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 정부의 경주 경마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 학회는 성명에서 "경마장 예정지에서 1백곳이 넘는 유적이 확인됐다"면서 "진정한 문화도시에 대한 안목이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무모한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문화재관리국은 경주경마장 부지 29만평 가운데 5만여평에 대해 지표조사한 결과 중요 문화유구를 확인함에 따라 오는 3월3일부터 최소 3년이 걸리는 본격적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주체인 마사회는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도시로 경마장 부지를 변경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주시는 경마장 건설이 지난 92년 대선때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확정된데다 마관발매액의 10%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경마장 부지는 신라6부촌의 하나인 습비부 물리촌이 있었던 자리로 신라사회상 연구가 귀중한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역촌초등학교 졸업식

교회서 치루려다 취소

서울 역촌초등학교(교장 전하찬)가 교회에서 졸업식을 실시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졸업식이 변경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역촌초등학교는 지난 19일 치러진 졸업식을 인근 교회에서 실시하려고 했으나 불자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지난 17일 졸업식장을 학교로 급변경했다. 이에대해 역촌초등학교측은 "추운 날씨관계로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치러려고 했을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학부모들은 "졸업식도 교육과정인 만큼 특정종교 시설에서 졸업식을 치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중앙총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지난 20일

전두환 노태우 前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방문,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면회 했다. 이날 면회에는 전·노씨의 변호사인 이상우 김유후씨의 안내로 총회의회장 설정스님과 수석부회장 법동스님, 정우스님(총무부과위원장) 영담스님(재정분과위원장) 진아스님(홍법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회의장단

全·盧씨 면회

면회후 한 스님은 "두 전직대통령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간직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대해 전씨를 면회오는 가족들에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위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님들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총회의원 진관스님도 면회하고 위로했다.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에 화재가 발생 대응전이 소실되는 등 약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관음종 묘각사 누전추정 '불'

지난 14일 밤 10시 40분경 서울 동대문구 송인동 소재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총본산 묘각사에 화재가 발생, 대응전을 전소시키고 5시간만에 진화됐다. 홍파스님은 "불길에 대응전내 인등쪽에서 솟았다는 주민들의 진

술과 화재발생당시 잠금장치로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누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이날 화재는 6명의 대응전, 6명의 범종각과 묘사체 일부가 불에 타 약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찰방화 예방" 당부

월주스님, 경찰청장에게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5일 이필우 서울경찰청장에게 초과일을 앞두고 사찰방화 예방과 장엄을 훼손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월주스님은 총무원을 예방한 이 서울청장에게 지난해 초과일을 앞두고 화계사와 삼성암 등에 이교도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화발생, 큰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대해 이 청장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일선경찰서에 특별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회 '운영규칙' 제정키로

발언 시간·횟수 제한 등 3월 총회서 논의

조계종중앙총회(의장 설정)는 지난 1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총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회의진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중앙총회 운영규칙(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때따라 효율적인 총회 운영은 물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견정족수의 하향조정, 총회위원의 징계 등 일부 조항은 총회와 상치하고 있어 총본산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칙은 중법보다는 하위개념이지만 제정되면 중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 규칙은 3월 6~7일 열리는 총회의원 연수에서 논의 거쳐 3월 25일~29일 열리는 총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의원 연수에서 논의 거쳐 3월 25일~29일 열리는 총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 설정스님은 규칙 제정과 관련,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 운영에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마음 '나'를 썩 빼어 놓아라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잘했다, 내가 죽었다, 내 것이다, 나이다 하는 아집·이မ်·이상·욕신을 썩 빼어 놓아라. '나'가 들어가면 이미 경건 것이니 당장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 해도 '나' 없으면 죽어야 제대로 놓는게 된다. 그뿐 되어야 거기에서 생수맛을 볼 수 있고 부학 자가 상봉을 할 수 있다. (한가음유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 허리, 다리, 질한및 지방축적 방지와 자세교정에 착용하는 신비의 건강 미용 의류 !!

!! 여성용(모나리자), 남성용(다윗)으로 되어 있고 남자의 경우 소변을 보기에 편리하며, 개인별 정밀측정이므로 허리: 5~6mmHg, 배: 6~7mmHg, 허벅지: 8~10mmHg, 종아리: 13~15mmHg로 부이별 압력분포가 다르며 허리에 특수코일빔과 특수자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착용시 상상을 초월한 편안함과 상쾌함으로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함!!

● 의학적 증명 ●

- ※ 대구 동산병원, 계명대 정형외과 강창수 교수(박사·과장·학장·의무원장) MBC, TBC, 인터뷰에서 본 제품은 디스크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며 다리관절 보호, 통증, 피로회복, 부전증과 혈액순환에 착용하면 효과가 매우 크다 함!!
※ 대구 동산병원, 계명대 성형외과 강진성 교수(박사·과장·학장·의무원장)는 혈액순환, 피로회복, 부기가 오는 부전증, 혈관종, 임파종을 예방 치료하며 특히 장시간 걸으면서, 서서, 앉아서, 운동, 직업, 생활, 여행, 임신부에 착용시 효과가 매우 크며 꺾어지는 허리, 다리를 예방할 수 있다 함.

※ 착용 대상자

골프·테니스·등산·조깅 등 보행을 많이하는 운동, 서서, 걸으면서, 앉아서 업무, 생활, 여행, 디스크 예방·방지, 허약한 허리, 골반, 다리, 통증피로, 바람, 저림, 근육통, 관절통, 굵은허리 다리, 힘없는 허리 다리, 임파종, 혈관종, 부전증, 조금만 걸어도 허리·다리에 피로를 빨리 느끼며 마비, 부기, 통증, 저림이 오는 분,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고난 후 지방축적 방지와 허리·배·다리에 균형을 상실한 분, 모든 운동후나 일과후 피로회복에, 미연에 예방차원에서도 착용하는 신비의 건강 미용의류!!

● 특허:63833호, 89633호, 특허출원:10978호, 5799호, 8510호

★저희 엄마의 손에서는저희 제품을 사업상 취급코자 하시는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점포, 무점포, 가정에서도 가능)

엄마의 손
제일
HAND OF MOTHER (JAEIL)

대구 본사 : 대구시 서구 평리5동 1536-1
TEL. (053)566-9226~7, 566-0750~31
FAX. (053)559-9226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삼창프라자 12층 2호
TEL. (02)717-4654~5, 717-4548~9
FAX. (02)717-4655